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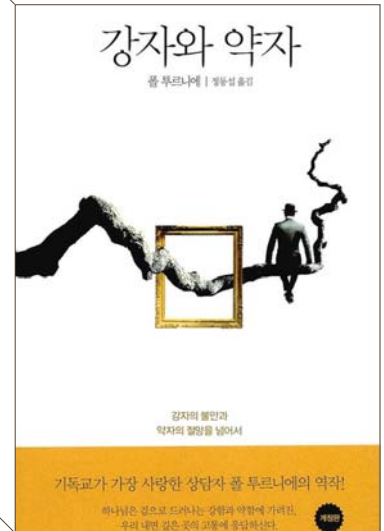
서평 <강자와 약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약자

이 책은 스위스의 내과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폴 트루니에(Paul Tournier)의 명작들 가운데 하나로 『강자와 약자』라는 제목의 도서이다. 총 3부(1. 인간에 대하여, 2. 인간의 반응, 3. 심리학과 신앙) 9개의 장(1. 외양과 실제, 2. 좌절, 3. 두려움, 4. 약한 반응, 5. 강한 반응, 6. 상호 반응, 7. 정당한 방어, 8. 심리적인 힘과 영적인 힘, 9. 진정한 힘)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강자와 약자의 심리학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강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과 아울러 약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 현상들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갑을(甲乙)관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심리학 서적으로 분류해도 좋을 서적이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저에 깔려있는 신학서이며 신앙서적이다. 뿐만 아니라 외도와 불륜을 저지르는 부부, 서로 비난하고 구박하는 부부, 결혼생활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부부, 팽팽한 긴장과 갈등 관계에 있거나 경쟁적인 부부, 서로 억압, 협박, 강요하는 부부의 문제들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과 구조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지침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책은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를 비롯하여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분석,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전요섭 성결대 교수 총신대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석사)하고, 연세대학교대학원(석사)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박사) 및 미국 Oral Roberts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보인다』를 비롯 45권의 저·역서가 있다.



강자와 약자의 양상은 부부를 비롯한 가정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흔히 발견되고 있다. 강자는 그야말로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올라선 사람이라면 약자는 말 그대로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밑에 깔린 사람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질 정도로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쉽게 관찰되는 현상이며 관계구조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강자는 자신의 성공을 과장하면서 약자를 짓밟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강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윤리가 나타난다면, 약자는 자신의 실패에 짓눌리고 강자에게 떨어져 열등감에 찌들어 더욱 약해지는 모습이 현실이다.

하지만 트루니에는 강자나 약자가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들은 모두 약자라고 전제한다. 소위 우리가 보는 ‘강자’들은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며, 실패와 실수를 무시하며, 성공을 지나치게 과장하면서 스스로를 과시하는 자들이다. 또 우리가 보는 ‘약자’들은 자신의 강점을 무시하고 좌절하며 성공과 성취조차도 지나치게 위축하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자로서 이 둘은 모두 약함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다. 사실 이 모든 현상은 동일한 뿌리의 다른 열매이며 강자든 약자든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투르니에의 분석이다. 강자나 약자는 모두 약함과 불안, 두려움이 그들의 심리 저변에 깔려 있다. 강자는 그것을 감추는데 성공한 자들이고, 약자는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들켜거나 드러난 자들이라는 차이밖에 없다.

우리 사회의 강자에 속한 사람들, 즉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별별 떠는 사람들, 높은 고지를 점령한 사람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영웅다운 기백을 가진 사람들, 판사, 교수, 교사, 의사, 목사, 사업가, 고용주... 이런 사람들도 사실상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자로서의 열등감과 불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강자는 이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부단히 포장하고 감추기에 성공한 결과로 자랑과 자기 과시가 나타나는 반면, 약자는 이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나머지 부단히 위축되고 잘 포장하지 못해 들켜고 실패한 결과로 수치와 자기 비난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서 강자가 자신의 약점을 감추고 자신감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더욱 짓밟는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함으로써 사회적 병리현상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트루니에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병리현상들은 강자가 강한 모습을 힘겹게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욕구를 짓누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런 모습은 약자도 예외가 아닌데, 자신의 약한 모습을 애써 감추려는 힘겨운 노력이 질병의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강자는 더욱 강한 척하며 약자를 희생제물로 삼는다. 더욱 강해지려는 과정은 비성경적이고 왜곡된 사회현상이며, 이상심리적이다. 약자가 더욱 좌절하고 열등감으로 강자를 두려워하며 움츠러드는 과정도 역시 비성경적이며, 잘못된 대인관계이므로 해결되어야 할 관계구조이다.

이 책은 강자를 부러워하며 강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강자가 된 자들에게 바른 삶의 자세와 태도를 성경의 교훈에 기초하여 가르쳐 주고 있다. 아울러 정당한 상태는 아니지만 약자의 유익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약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죄를 인정한 사람만이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듯이, 강자들 약자들 자신의 죄와 약함과 불안과 두려움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때 영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저자의 강조점이다. 자신의 문제, 약함, 불안, 두려움, 죄책감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인간 상호간에도 진정한 대화가 가능해지며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바람직한 일이 '심리적 검열'이라는 장애물로 인해 서로 진솔해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대화는 강자의 허세와 약자의 수치로 인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은혜는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약속된다. 신앙은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게 한다. 우리는 두려움을 억누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이 두려움으로 인



해 발생하는 약한 반응인 우울, 낙담, 슬픔, 자기 연민, 자책, 권태감, 지나친 자기 비난, 공포, 현실도피, 은폐, 침묵, 무기력 등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용기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건의 시간’을 따로 마련하여 기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트루니에는 마송 우르셀(Masson Ourself)의 “... 모든 것을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굴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그러한 태도를 신앙에 적용할 것을 피력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이해하기 힘든 인간의 이상행동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안내서이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 청소년기나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교만, 반항, 권위주의, 허영, 분노, 감정 폭발, 변덕스러운 행동, 히스테리의 발작, 불륜 그리고 수치, 수줍음, 두려움, 죄책감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가를 매우 이해하기 쉽게 여러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다. 의사이자, 정신의학자인 트루니에의 수십년 경험이 고스란히 담긴 풍성한 예화로 독자들이 쉽고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책의 최대 강점이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인 9장은 결론이다. 여기서 저자는 진정한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힘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관계나 구조가 강함과

약함의 이분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문제는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힘의 문제이다. 따라서 진정한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 진정한 힘과 능력은 의학적이거나 심리학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의사이며 정신건강 의학자로서 신앙으로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저자는 기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된 다양한 치료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의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접근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신앙이 아니며, 모든 질병을 신앙이 치료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분명히 있고 신앙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명백하게 치료하는 현상들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여러 기독교 명작들을 저술하여 세계적으로 선한 영향을 미친 트루니에의 사상은 “강자와 약자”라는 주제로 이 책에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있다. 강자는 자신의 약함을 충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약자를 배려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며, 약자는 자신의 약함에만 집중하여 움츠러들지 말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얻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이해할 수 없었던 강자들의 이상심리와 행동들 그리고 역시 알 수 없었던 약자들의 왜곡된 마음과 태도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받기를 바란다.

이 책은 읽기에 매끄럽게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에서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술적으로 옮겼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이다. 